



5월 호랑이
그들이
무서워졌다

KIA 탈꼴찌 성공...4위 두산과 5.5게임 차

"5월의 대반격, 5.5게임을 잡아라."
KIA 타이거즈가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죽음의 9연전'
에서 6승2패를 거머쥐며 기사화했다.
이런 주 KIA는 2위팀 한화 이글스와의 대전 원정경기
에 이어 최하위로 떨어진 LG트윈스와 홈 경기를 갖고 순
위 올라기에 나선다.
4위 두산과는 5.5게임차, 좌측의 5연승으로 멀게만 보
이던 중위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망은 밝다. '탈꼴찌'에 성공한 KIA는 6위 우리와의
격차를 만 게임차까지 좁혔고, 홈경기 2연승에 이어 원정
3연전 싸움으로 승률은 0.389까지 뛰어올라 팀 분위기가
최고조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공·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 특히
지난 5경기에서 0.60의 평균자책점으로 상대 타선을 공포
뿔은 마운드의 위력이 가공할 만하다.
'위기의 용병' 리마는 지난 9일 우리와의 경기에서 7이
닝을 단 2개의 안타로 막으며 마운드에 재합류, 선발 로테
이션에 여유가 생겼다.
SK로 이적한 전병두가 빠진 자리에는 '총알투'를 장차
한 이범석이 자리를 잡았다. 지난 7일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한 이범석은 13일 20살 차이가 나는 송진우를 상대로
2승 쟁기에 나선다.
마무리 한기주의 복귀도 천군만마다. 아예 피로로 임시
휴업했던 한기주는 지난 7일 15일만에 마운드에 올라 팀

지난 9연전에서 6승 2패 대반격
공·수 특유의 집중력 살아나
노장들 투혼 팀 분위기 상승

5연승을 도우며 세이브 3개를 챙겼다.
가파른 상승세의 포수 차일목은 마운드 안정에 일등공
신이다.
주전 김상훈이 부상으로 이탈한 후 급격히 흔들렸던 마
운드는 차일목의 성장세와 맞물려 안정을 되찾았다. 마운
드와 호흡이 적적 맞아가면서 지난 9일 프로데뷔 첫 홈런
을 때려 낼 만큼 공격력도 함께 상승이다.
12일 현재 타격 1위 김원섭(타율 0.370)이 이끌고 있는
팀 타선도 최근 5경기에서 0.292의 타율을 기록하며 공격
에 눈을 떴다.
부상으로 중상타자 장성호·최희섭 빠진 상황에서도 타
선의 고른 활약으로 집중력이 좋아졌다. 연일 팽타를 휘
두르고 있는 노장 이종범의 활약도 분위기 반전에 결승타
가 됐다.
이번 주 맞붙게 되는 팀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한화
와 LG다.

Table with 12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Lists team performance for 12 teams.

현진과의 대결을 피하게 됐다. 반면 KIA 마운드에는 이범
석-윤석민의 짧은 피와 노련미가 마리가 버티고 있다.
LG는 지난 9연전에서 팀 평균자책점이 7.20에 이르며
1승8패로 최하위로 추락했다.
9연패로 팀 창단 이후 최다 연패 기록까지 세우는 등
공·수 모두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LG는 부랴부랴
용병 투수 브라운을 내보내고 좌타자 로베르토 페타지니
를 영입해 중상타선 보강에 나섰다. 용병 교체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가까스로 팀 연패를
끊은 '빅 리거' 봉준근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서
재웅과 이대진이 LG 사냥에 나서는 만큼 KIA에 더 무게
가 실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웅선 조 우승

ATP 스파르카센컵 복식 우승
단식에선 아쉽게 준우승 그쳐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3위 노
박 조코비치(21·세르비아)가 마스터스시리
즈 인터내셔널 BNL 이탈리아(총상금 227만
유로) 단식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
마에서 열린 단식 결승에서 스타니슬라스
바빈카(24위·스위스)에 2-1(4-6 6-3 6-3)
로 역전승했다.
시즌 세 번째 우승이고 개인 통산 10승째
를 올렸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ATP 켈린저 스
파르카센컵(총상금 5만유로) 복식 결승에
나선 전웅선(22)은 다니엘 브란스(독일)와
짝을 이뤄 우승을 차지했다.
전웅선-브란스 조는 일리아 보졸리아차-
두산 베미치(이상 세르비아)조에 2-1(2-6
7-6(4) 10-6)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 대회 단식 준우승, 복식 우승의 좋은 성
적을 낸 전웅선은 프랑스 보르도로 이동해
ATP 켈린저 BNP 파리바스 프라임로즈 보
르도(총상금 8만5천유로)에 출전한다.
12일자 랭킹에서 240위 안팎에 오를 것으
로 보이는 전웅선은 단식 1회전에서 장 르네
리스나드(236위·모나코)와 맞붙는다.

가르시아 연장 역전승...앤서니 김 42위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제5의 메이
저대회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마의 17번홀'에서 못
았다.
가르시아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
다주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 스타디
움코스(파72·7천22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끈질긴 추격전을 펼친 끝에
43세의 베테랑 폴 고이도스(미국)와 5언더
파 283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 첫번째
홀인 17번홀(파3)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극적인 역전 연장전 우승
으로 PGA 투어 통산 일곱번째 우승컵과 합

계 상금 171만달러를 받으며 골프 인생에 새
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럽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87년 샌디 라일(영국)의 연장전 우승 이
후 21년만이다. 고이도스에 3타 뒤진 채 4라
운드를 시작한 가르시아는 보기 3개를 했지
만 버디 4개를 잡아내 1언더파 71타를 쳐 2
위로 72홀 경기를 마친 채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렸다.
같은 조에서 경기하던 제프 퀴니(미국)도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은 공
동 42위(7오버파 295타), 나상욱(24·코브라
골프)은 공동 54위(9오버파 297타), 위창수
(36·테일러메이드)는 공동 63위(10오버파
298타)로 대회를 마쳤다.

'魔의 18번 홀'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우승하려면
18번 홀에 물어봐!"
지난 11일 끝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에서 '우승 결정 홀'로 떠오른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파72·6천264야
드) 18번홀(파4·387야드·임페리얼코스 9
번홀)에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평CC 18번홀은 최고의 난이도를 요
구해 프로골퍼들에게는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관문'으로 대두됐고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도 고수의 실력을 입
증 받는 홀이 됐다.
18번홀은 티샷이 떨어지는 지점 양쪽으
로 벙커가 있어 정확성이 요구되며 세컨드
샷 역시 그린 앞쪽의 벙커, 오른쪽의 워터
헤지드, 왼쪽의 아웃오브바운드(OB)를



함평다이내스티CC 18번홀

함평다이내스티CC
KB스타투어 1차대회 3R
버디 겨우 7명, 보기 14명

피해 정확하게 온 그린 시켜야 하기 때문
에 조그마한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스타투어 대회 3라운드 동안 18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선수는 참가자 118명 중 단
7명에 불과했고 파는 32명, 보기 14명, 더
블보기 5명, 그 이상을 기록한 선수도 많았
다. 파4홀인 18번홀의 평균타수는 4.632타
로 대회 최고의 홀난이도를 기록했다. 이
처럼 까다로운 18번홀에 대해 선수들은
'공포의 홀', '운명의 홀', '승부의 홀' 등 여
러 수식어를 붙여가며 혀를 내둘렀다.
역시 이날 마지막 3라운드에서 1타차 선
두를 달리던 안선주(21·하이마트)는 마지
막 18번홀에서 지난 대회 트리플 보기 악
몽을 떨쳐내려는 듯 드라이버 대신 우드를
선택하고 세컨드 샷을 그린에 올리는 등
전력을 다해 우승을 확정짓는 듯 했다. 하
지만 안선주는 내리막 1.5m 쉐퍼인 퍼팅
에 실패하며 연장전에 돌입, 결국 조아람
(23·ADT)에게 '엘로우 재킷'을 내주고 말
았다.
이일희(20·한이유통)는 "그동안 플레
이 해본 홀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운
홀이다"며 "맞바람이 불면 드라이버를 치
고 세컨드 샷을 다시 우드로 쳐야 할 정도
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소렌스탐 미켈름 오픈 우승...오초아 독주 견제

LPGA '양강 체제'

새로운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코·오른쪽)의 독주체제가 굳어질 듯
했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팬도가 옛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
웨덴·왼쪽)의 완벽한 부활로 '양강 시
대'에 접어들었다.
소렌스탐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킹스밀 골
프장 리버코스(파71·6천315야드)에
서 열린 LPGA 투어 미켈름 울트라오
픈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5타로 우
승을 안았다.
시즌 세번째 우승을 차지한 소렌스
탐은 디승 부문에서 오초아(5승)와 간
격을 2승으로 좁혔고 시즌 삼승 역시
오초아에 이어 두번째로 100만달러를
돌파하며 바짝 따라 붙었다.
소렌스탐은 이번 우승으로 단 1승
도 챙기지 못하고 오초아가 '여제' 자

리에 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작
년의 소렌스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
천하에 알렸다.
앞서 두차례 우승이 오초아가 출전
하지 않았던 대회에서 나왔다는 이유
로 평가절하됐던 서운함도 깨끗이 씻
어냈다.
경기 내용도 완벽했다. 멀리 똑바로
날아가는 드라이브샷과 어김없이 그
린에 떨어지는 아이언샷은 전성기 때
와 다름이 없었다.
대회 내내 페어웨이 안착률은 87.
5%에 이르렀고 그린 적중률은 70.8%
라는 놀라운 수치로 나타났다. 퍼팅
은 라운드 평균 26개에 불과했다.
장정(28.기업은행)과 재미동포 김
초몽(24) 등 두명의 한국 선수가 준우
승을 차지했지만 소렌스탐의 화려한
부활쇼에 빛이 바랬다.